

불서 7만권 목록정리 불교서지학계의 보석

'불교학 논저목록 DB 구축'의 선구자 이철교(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팀장) 씨. 그는 불교학계의 보석 같은 존재다. 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후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불교학자들이 연구보다 자료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불교학 논저목록 정리다.



그가 10여 년 동안 정리한 불교학 관계 논저목록은 약 7만여 권. 현재 마지막 교정작업 중인 이 목록들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간 일본·중국·미국 등에서 발표된 한국불교관계 논문을 포함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씨가 불교사서의 길을 걷게 된 인연은 군법사 제대 후 국립중앙도서관 시절부터 시작된다. 불교학 연구가 시작된 60년대 동국대 도서관에는 전문사서가 없었다.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동국대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3개월 과정의 사서강습과 민족문화추진회 그리고 국역연구원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직업적 관심이 아니라 불교가 그저 좋아서 시작한 것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향하는 방법은 많습니니다. 도서관에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학자들을 서지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들이 본연의 연구가 아닌 서지조사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책과 삶

불교 논저 종합색인 내는 이철교 씨

"사서는 내 천직"

불서 1만여권 소장

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학자들을 서지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들이 본연의 연구가 아닌 서지조사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도서관 직원을 넘어 불자로서 세운 그의 개인적 발원은 이제 한국 근현대 불교학의 숲을 기우어 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의 성과는 기본적인 목록정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불교학 관련 문헌을 전담하는 '불교학 자료실'과 같은 기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사실 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고전과 근·현대의 모든 논저목록은 물론 원문까지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관계 단행본과 잡지류 등 1만 여권을 소장하고 있는 그는 애증이 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멸실위기에 있던 불서를 보물급으로 되살리기도 했다. 일원상에 대한 역대 조사들의 글을 모아놓은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이 그중 하나다.

올 해 안에 마침 한국불교관계 논저 종합색인. 이전 불교학자들이 이를 토대로 양질의 논문을 발표할 차례다. "불교서지사전과 불교서지연표를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불교서지학의 뼈대를 세우는 원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그의 말 속에서 비상하는 불교학의 미래가 예감된다.

경주=김종근 기자

시간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여운
자역음, 다할미디어는 출가수행자의 입문과정인 행자생활을 담은 책이다. 행자들의 사시풍류한 일상에서부터 사미계를 수지할 때까지의 고뇌와 의지를 담백한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책의 첫 부분을 펼치면 일제 치하에서 초근목피로 살아가던 선조들의 처절한 삶이 가슴 찡하게 다가온다.



매섭던 출가시절 '절집살이' 회상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여운

머뭇한 가마니를 지고 찾아온 처사에 게 삶을 내어주고 겨우내 그 머뭇으로 연명해야 했던 동관암의 두 스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해인사도견스님.

스님은 남자는 군대로, 여자는 정신대로 끌려가던 시절, 오대산 동관암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한다. 은사 스님과 단들이 사는 동관암에서의 행자생활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은사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초발심자경문>과 <천수경>을 외우고 불교의식을 몸으로 익히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한 스님의 방편으로 완전히 바뀐다. "웃어른 시봉하는 것이 어찌 그러한가"라며 눈물이 속 빠질 정도로 야단친 스님은, 보름동안 머물면서 시봉하는 법을 엄격하게 가르친다. 밥과 반찬 그리고 빨래하는 것은 물론 은사 스님의 누더기 옷을 깎는 것까지 해야 했다.

책은 도견·석주·원담·탄성·월

운 스님을 비롯해 도법·원택·종립 스님 등 중진스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45명의 행자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正覺)이라 했던가. 이렇듯 출가자에게 있어서 초발심 내는 때는 바로 구도자로서의 앞날을 결정짓는 시절이다. 이 책은 지금의 중진

1900년대 승가생활 묘사

원로 등 45명 옛시절 고백

이나 원로가 된 수행자들의 초발심 시절인 행자시절 이야기를 통하여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처음 마음은 어떠한 것이며,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1900년대. 따라서 그 당시 승가의 엄격한 법도와 생활 습관 그리고 만공·금음·한암·성철 스님 등 그 시대를 살았던 선지식들의 선지도 엿볼



후원에서 대중 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행자들의 모습.

수 있다는 점은 덤으로 읽는 즐거움이다. 일반적으로 행자생활은 후원 일과 <초발심자경문> 등 경전공부와 독경, 기도이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스님들의 행자 생활은 지금과는 다르다. 먹고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자 어려운 일이었던 어렵던 시절, 배는 풀었으나 깨침을 향한 열정만은 무섭게 타오르던 행자시절의 이야기는 오늘날 출가하는 행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또 자그마한 실수로 절에서 쫓겨날 뻔했던 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했던 시절이었기에 출가의 참뜻이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스님들의 고백은 답답하면서도 처절하게 읽힌다.

행자시절을 고백한 스님들은 대부분 '늘 처음처럼'을 강조한다. 아마 그 마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a.com

깨친 제자 11명이 쓴 스승 이야기

로슬린 무어 '파파지와 만남'

어쩌면 인생은 끝없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수렁으로 빠뜨릴 만남이 될지, 한 줄기 빛이 되는 만남일지도 무지 알 수 없는 의문 덩어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꿈꾼다.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수록 더욱 더.

신간 <파파지와 만남>(로슬린 무어 지음,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는 참나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만남을 인도한 사람은 '파파지(사랑하는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의 영적 스승 스리 하리 완쉬랄 폰자(1910~1997). 그는 참 스승을 찾기 위해 인도를 유행하다 남인도



타루반나말라이에서 라마나 마하쉬쉬를 만나 참 자아를 깨닫게 된다. 그 후 유럽 남미 등지에서 가르침을 펴다 1989년부터는 리아우에 머물며 찾아오는 구도자들에게 진리를 전했다.

이 책은 파파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깨달은 제자 열한 명이 스승과 만남을 회상한 이야기다. 그들은 파파지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참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등을 들려준다. 값 9천원.

김종근 기자

어둠 밝히는 詩語

정완영 시조집 '이승의 등불'

고향, 자연 그리고 사물을 주로 시조에 담은 백수 정완영(83) 씨가 시조집 <이승의 등불>(토방을 내놓았다. 이 시조집은 마치 이승의 온갖 탐욕과 망상을 떨친 듯한 원로 시인의 향취가 행간마다 묻어난다. 특히 머리말을 대신한 서시가 그렇다.

"내가 죽어 저승엔 가면 이승이 고향 아닐까. 너랑 나는 한잔 차 이야기 오소스. 추운 낙엽 가을 밤 잘 익은 등불이 모두 곱길



에 밝히겠네." 이처럼 정 시인은 시어를 통해 이승과 저승이 돌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지구도 하늘일거야. 우리마음 짐경다리는 하늘나라 오작교이고, 냇물에 엮드린 돌팍은 가막까지 머리일거야..."(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중에서).

사라마다 등불 하나씩 달아 준다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는 정 시인. 그가 말과 생각을 아껴 내놓은 이 시조집은 시보다는 화두로 읽힌다. 값 7천원.

김종근 기자

강건기 '목우자 지늘 연구'

"지늘사상 조명 실천 방안 제시"



1988년 전북 불교대학을 설립해 전남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강건기(전북대 철학과) 교수는 전법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거친 정통 불교학자다. 특히 '토마스 머튼과 보조지늘 사상의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늘의 돈오점수사상 등 보조지늘 스님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는 등 20여 년간 보조지늘 사상을 천착해 왔다.

신간 <목우자 지늘 연구>(부처님 세상은 강 교수의 보조지늘 연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결정체다.

강 교수가 학자의 길에만 안주하지 않고 포교와 전법의 전담인 전북불교대학을 설립한 것은 어쩌면 단순한 사상가나 이론가이기를 거부하고 체험과 실천을 강조한 지늘 스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 책은 그런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강 교수는 이 지늘 사상을 현대에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의 확립과 실천을 제안한다. 값 1만원.

김종근 기자

반야심경에 나타난 삶의 지혜

'차나 한잔 들고 가시게' 양윤옥 옮김

<반야심경>은 단연코 대중불교의 근본 이념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우리나라에 뿌리진 신앙의 씨앗도 모두 이 경전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불교를 알고 싶다면 <반야심경>부터 알고 보아야 한다. <반야심경>에 대한 책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간 <차나 한잔 들고 가시게>(양윤옥 옮김, 장혜는 <반야심경>을 통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지은이는 만다라 모임 회장으로 종교 사상연구와 강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히로 사치야(다이스) 대학 교수. 그는 차 맛을 음미하며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 논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동안 출간되었던 수많은 <반야심경>이 경전풀이나 해석에 치중했다면 이 책은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를 깨우쳐준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다산출판사
2	선의 나침반	현 각	열림원
3	절을 기차처럼 달리는 법	청 견	벗들의 마을
4	영가천도	우 흥	효림
5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6	김강경 강의	해 거	부인스튜디오
7	지장경 강의	무 비	불광
8	은 세상은 한 송이 꽃	무 심	현암사
9	성철스님과 모교동자	정 찬 주	현대문학이원
10	물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서 웅	다른세상

도서 안내:(02)737-0695

가족의 우환, 결혼 생활, 사업의 성패, 미래의 전망등 갖가지 인생문제 해답을 이책에서 얻는다!

"살아있는 에너지, 우리 몸엔 氣가 있다"

21세기, 과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4차원의 정신세계(氣)', 질병과 고통 등의 갖가지 인생문제의 해답을 전문가가 지선 스님에게서 얻는다. '좋은 기를 받느냐 나쁜 기를 받느냐'에 따라 무병장수 할 수도 단명병사 할 수도 있다. 좋은 기를 얻는 방법만 터득하면 누구나 다 행복해 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은 氣에 따라 바뀐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노력과 성공은 정비례한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등의 좋은 금언이 많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말이고, 4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우선은 '기'의 영향으로 인간 삶의 행·불행, 인간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모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고통, 무병장수와 단명병사 등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이 '좋은 기'와 '나쁜 기'의 영향으로 그 첫째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신이 전개하는 논리와 현실적 사해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자신의 환경을 좋은 기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기의 작용으로 행복한 인생의 축진제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실의 우환과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신과 가족들이 밝은 미래의 인생을 보장 받고 싶은 사람, 미래에 큰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현재 불행속에 있는 남녀들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책, 평생 일년 열두 달 편안하게 살게 하는 지혜의 그릇이 바로 이 책이다.

기(氣)이는 만큼 행복하다

지선 스님의 기(氣) 강의 전국강타

- 한국정신과학회 세미나 (2001년 3월 28일 대전 KAIST강당)
- MBC-TV 아카데미 출연 (2001년 5월 4일 안동 MBC-TV 방송국)

- 저자 - 지선 스님 (대구 팔공산 자비사 주지 스님)
- 신국판 - 278페이지 정가 9,000원
- 책속 부록 - 기력을 일깨우는 지선 스님의 신비의 달미도